

광주시 “차 중심도시 탈피”… 시민 “운전자 불편 강요”

광주 ‘대·자·보 도시’ 반응

“인구도 줄어드는데 광천동까지 지하철 연결했다가 운영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복합쇼핑몰 쇼핑객 중 집 들고 버스(BRT) 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광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에 올라온 광천동 복합쇼핑몰 인근 교통 대책과 관련한 시민 의견이다. 대체적으로 도시철도(지하철)를 선호하는 글이 많았고,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BRT나 도로 다이어트 등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2045 탄소중립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주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선 찬반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의 대·자·보 사업의 핵심인 도로 다이어트와 BRT(간선급행버스)의 장·단점과 시민 반응 등을 살펴봤다.

◇자동차는 불편하고, 사람은 편한 도시 꿈꾼다 =광주시는 자동차 이용이 불편한 대·자·보 사업 중 하나로 기존 도로의 차로 또는 폭을 축소하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가 도로 다이어트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7.06km 도로를 도로 다이어트 시범사업지로 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비용·효율적 측면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 사업대상지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1호선 1단계 공사 구간 상층부 재포장 시점에 맞춰 차로 폭을 축소하고,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가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시민들이 2019년부터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겪으면서, 차로 축소 등 열악한 안전 여건에 적응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19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17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또 다른 대·자·보 대표사업으로 광천동·임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와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 사업’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애초 지상 도로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도시철도(지하철) 신설을 검토했지만, 자동차 이용이 불편한 대·자·보 정책 추진에 맞춰 최근 BRT로 급선회했다.

BRT는 도시철도 대비 10%도 안되는 저렴한 초기 공사비와 1년 안팎의 짧은 사업 기간이 최대 장점이다. 또 기존 시내버스보다 운행시간은 단축하면서, 지하철보다 탑승 접근성이 뛰어나고, 투입 버스 수 조절 등 유연한 운영방식 등도 강점으로 꼽힌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자·보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자·보 정책에 대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실행성을 담보로 적극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로 전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

시민 의견 묻지 않고 진행 불만

쇼핑객 BRT 이용 부적절 의견도

환해야 하며, 도로 다이어트는 물론 일방통행로 확대 조정을 통한 인도 확보, 대중교통 전용차로 및 보행 전용도로 확대 등 걷기 편한 도시 조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가 불편하면 사람이 편하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개인 차량 운전자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대·자·보 사업 방식에 거부감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시민 박수찬(49·남구 봉선동)씨는 “지하철 공사 이후 매일 아침 출근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올 연말이면 도로포장을 한다는 말을 믿고 버려 왔다”면서 “그런데 시민의견도 묻지 않고, 지하철 공사기간 도로의 불편함을 적응했으니 이번 기회에 아예 도로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첫 시도하는 도로 다이어트 구간이 2019년부터 공사 중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7.06km 도로라는 점도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시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혼잡도로 구간이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가 지난 3월 공개한 교통량 정보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주요 교차로 일일 교통량은 최대 8만대 수준으로 출·퇴근 시간대 상층부 구간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향후 5년 이상 광주 북구·광산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대규모 도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도심 주요 도로가 도로 다이어트 등으로 축소돼 차량 정체를 빚는 상황에서, 대형 도로 공사까지 맞물린다면 심각한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 도입을 검토 중인 ‘광천선(시청-광천터미널-광주역 7.8km)’에 대한 우려도 크다.

차량정체가 심각한 광천 사거리를 관통하는 노선 특성상 기존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BRT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실제 하루 평균 교통량이 12만대인 광천사거리는 더현대 광주 등이 문을 여는 2028년이면 하루 교통량이 24만대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30년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스타필드 광주’까지 문을 열면 광주는 임동 오거리-광천 사거리-무진대로로 이어지는 이른바 ‘교통지옥 라인’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특히 BRT는 필수적으로 기존 도로 중 일부를 전용차로로 점용해야 하는 탓에 기존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난 가중, 도시철도와 환승 절차 불편, 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급증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조현상 HS효성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HS효성 조현상 대표 “계열분리 시간 걸리지만 계획대로 진행”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참석

효성그룹의 신설주주사로 1일 새롭게 출범한 HS효성의 조현상 신임대표가 계열 분리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조 신임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계열 분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룹 계열 분리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원래 계열 분리는 계획대로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얽혀 있는 지분이 많아서 생각보다 프로세스가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조 신임대표는 “계열 분리 시점이 정해지면 예

기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HS효성은 지난 6월 재편된 효성그룹의 2개 지주회사 중 하나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신임 대표가 HS효성을 이끌게 됐다.

신설 지주인 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윙스USA, HS효성터클레스, HS효성토요타, HS효성비나물류법인 등을 주요 계열사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현재 경영”으로 효성그룹을 이끌어온 장남 조현준 회장과 조 신임대표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그룹 분리를 위해 소유 지분의 변화를 가져갔다. 조 대표의 얘기처럼 완전한 지

분 정리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 신임대표는 이날 HS효성의 집중 투자 분야에 대해 “지금 저희가 하는 포트폴리오 관련 투자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합병(M&A) 분야에 대해서는 “M&A는 회사가 성장하는 방법의 하나니까 정해서 어떤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M&A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M&A만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조 신임대표는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정책 중장기 전략 수행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기존 ‘저출생·고령사회위원

회’가 수립을 주도하던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5년) 수립 권한을 이어받고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방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전

략기획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사전심의 예산 범위는 이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현재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첨착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대표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